



이종범

서재은

이현곤

이보미 JLPGA 우승컵 첫 키스

요코하마 타이어 PRGR...안선주와 연장서 극적 승리

이보미(24·정관장)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대회인 요코하마 타이어 PRGR 레이디스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보미는 11일 일본 고치현 도사 골프장(파72·632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합계 3언더파 213타를 치고 지난해 JLPGA 상금왕 안선주(25)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 들어갔다.

18번홀(파4)에서 계속된 연장 1차전에서 보기로 비긴 이보미는 2차전에서 파 퍼트에 성공했다. 안선주는 파퍼트를 놓쳐 준우승에 머물렀다.

201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금왕 이보미는 일본 무대에 진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보미는 작년 이 대회 1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로 나섰다가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남

은 라운드가 취소돼 우승할 기회를 놓친 아쉬움을 털어냈다. 3명의 공동 선두에 1타 뒤진 4위로 3라운드를 시작한 이보미는 2번홀(파3)에서 1타를 잃어 우승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보미는 선두권 선수들이 타수를 잊고 무너지는 사이 7번홀(파5)과 8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았고 10번홀(파5)과 12번홀(파4)에서도 1타씩 줄여 역전 우승의 발판을 놓았다.

이보미는 이 대회 우승으로 상금 1440만 엔(약 2억원)을 받아 상금 랭킹 1위(1610만 엔)로 올라섰다.

강수연(36)과 전미정(30·진로체관)은 이 분과 216타로 공동 4위, 김나리(27)는 1오버 217타로 공동 7위에 자리했다.

이나리(24)는 공동 10위(2오버 218타)로 대회를 마쳐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올랐다.

/연합뉴스



이보미(정관장)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요코하마 타이어 PRGR 레이디스 대회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명가 재건’ 위해 형님들 나섰다

KIA 오키나와 캠프 이종범·서재응·이현곤 등

배팅볼 투수 자처하며 타격 도우미 솔선수법

명가재건을 위해 호랑이 군단의 고참 선수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오키나와에서 훈련중인 KIA 타자들은 프로야구 최고참 선수가 던져주는 공을 때리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프로야구 최고참 이종범은 자신의 배팅훈련이 끝난 후 투수로 변신한다. 후배들에게 배팅볼을 던져주면서 타격훈련을 돋고 있는 것이다.

오랜 타국 생활에 친한 후배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면서 만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종범 외에도 김상훈·이현곤 등 고참 선수들은 자처해서 마

운드에 올라 배팅볼 투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후배들의 훈련을 돋는 것은 물론 긴 스프링캠프에 탈이 난 고칭스타프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KIA는 지난 1월15일 미국 애리조나에 캠프를 차리고 2012시즌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13일 귀국길에 오르면서 59일간의 스프링캠프 대장정이 진행되고 있다. 기간 내내 배팅볼을 올려주던 고칭스타프들이 막바지 어깨 통증에 시달리면서 고참 선수들이 배팅볼 투수로 나섰다.

자신의 훈련이 끝나고 또는 자신의 배팅 시간을 기다리다가 헬멧을 쓴 차 마운

드로 달려 올라가기도 한다.

이종범은 “내 운동이기도 하다. 야구는 벌런스가 중요한데 공을 던지면서 벌런스도 잡고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배팅볼을 던지면서 운동도 하고 타석에서의 타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타격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타석에 선 타자들도 다양한 공을 보면서 선배들과 즐겁게 배팅훈련을 하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서재응의 파이팅이 돋보인다. 그라운드 밖에서 ‘응원단장’으로 통하는 서재응이지만 훈련중에는 가장 매서운 선배다. 후배들이 연습하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바로 서재응의 한마디가 나온다. 캐치볼을 하면서, 수비 훈련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한다. 공을 나르기도 하고 수비훈련 때 보조 역할을 하는 등 솔선수법이며 KIA 스프링캠프를 이끌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ju.co.kr

곽윤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첫 개인종합 우승

한국 쇼트트랙의 ‘돌아온 국가대표’ 곽윤기(23·서울일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첫 개인종합 정상을 차지했다.

곽윤기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막을 내린 201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종목 종합 포인트 102점을 얻어 남자부 개인종합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우승자 노진규(20·한국체대)가 76점으로 준우승했고, 올리비에 장(캐나다)이 52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곽윤기는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던 선수다.

그러나 같은 해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선수 선발 과정에서 외압과 짐짓미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쇼트트랙 파문’에 훨씬 더 6개월 동안 선수 자격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아 대표팀에서 탈락했다.

두 시즌 만에 빙판에 복귀해 한층 성숙한 기량으로 주위의 우려를 씻어낸 곽윤기는 내친김에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을 깨끗하게 씻어냈다.

곽윤기는 상위 8명의 선수가 벌이는 3,000m 슈퍼파이널에서 4분40초401의 기록으로 노진규(4분40초407)를 1천분의 6초 차이로 밀어내고 우승했다.

포인트 34점을 더한 곽윤기는 처음으로 개인종합 우승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다운(19·서울시청)은 4분41초000의 기록으로 슈퍼파이널 3위에 올랐다.

한편 전날까지 ‘노메달’ 수모를 당했던 여자 대표팀은 ‘믿언니’ 조혜리(26·고양시청)의 활약으로 자존심을 세웠다.

/연합뉴스



아시안 T.011-602-2098

▲광주사랑상시회 경남 삼천포 둔산석 등식선 입암산행 3월18일(일)

74,000원 부터! 매일출발!(1박2일)

74,000원 부터!

74,000원 부터!